



가전+가구, 패션+향기...뭉쳐야 팔린다

하이마트+한샘, 가전매장서 가구도 구입
리바트, LG TV '결합상품' 구매시 할인
패션매장, 협업으로 라이프스타일 제안



유통업계에서 불고 있는 '협업 마케팅'의 진화가 거침이 없다. 동종 업계와의 단순한 제휴를 넘어 매출 극대화를 위해 제품 협업을 넘어 이제는 매장까지 합치고 있다. 고객 관점에서 서로 관련성이 높은 상품을 배치, 새로운 고객 유입을 노리는 전략이다.

●**집안처럼 꾸민 매장서 가전, 가구 함께 구매**
가구·인테리어 업체 한샘은 최근 롯데하이마트와 손을 잡았다. 롯데하이마트 창원 상남점 5층 매장 중 3층에 침실, 서재, 거실 등 주택 공간을 재현해 여기에 가전제품과 한샘의 가구·인테리어 제품을 배치했다. 소비자들은 실제 집안 공간과 같은 곳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현대리바트도 전국 90여개 매장에서 LG전자 TV를 판매하고 있다. 리바트 소파와 LG전자 TV를 함께 구입하는 고객에게 10~30%의 할인도 제공한다.



한샘과 롯데하이마트가 맞손을 잡은 롯데하이마트 창원 상남점 내부 전경, 현대백화점 목동점에 오픈한 LF '마에스트로 시그니처 스토어', 코오롱FnC 커스텀멜로우의 공간 프로젝트 '인스펙터' 전경(왼쪽부터)

이렇게 두 분야의 업체들이 '결합상품'을 내놓는 것은 구매 소비자층이 겹치기 때문. 결혼, 이사,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가전제품도 교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최근 단순히 제품을 매장에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과 유사한 공간을 꾸미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런 공간에 가전제품도 함께 전시하면 사실감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해 소비자들 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패션 매장, 라이프스타일 체험 공간으로 변신**
그런가 하면 패션업계는 매장을 라이프스타일



LF 남성복 브랜드 마에스트로는 현대백화점 목동점에 '마에스트로 시그니처 스토어'를 열었다. '가지고 싶은 남자의 서재 공간'이란 콘셉트로 의류는 물론 가구, 구두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함께 판매한다. 35~45세 남성 고객이 늘고 쇼핑을 여가활동으로 여김에 따라 매장을 일상의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제안하는 곳으로 진화시켰다.

서울 한남동에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 삼성물산 패션부문 여성복 브랜드 구호의 경우는 향기 전문 브랜드 '오반 유니온'과 손을 잡고



도시적이고 중성적 이미지의 구호 향을 개발해 디퓨저, 캔들 등을 출시했다. 이밖에 코오롱FnC 커스텀멜로우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매장에서 미디어아트 작가 듀오 신남진기와 손잡고 공간 프로젝트 '인스펙터'를 선보였다. 다양한 사물과 빛으로 표현한 미디어아트를 패션 아이템과 연결해 공간을 입체적이고 재밌게 꾸민 것이 특징이다.

김현 커스텀멜로우 브랜드 매니저는 "매장에서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 즐기도록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현대자동차 BMW 고급차 플랫폼 전문가 영입

제네시스 개발실장에 파예즈 라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완성도와 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플랫폼 부문을 혁신할 전문가로 파예즈 라만(사진)을 영입, 제네시스 아키텍처 개발실장(상무)으로 선임했다. 파예즈 라만 상무는 BMW에서 플래그십 라인 7시리즈와 고성능 브랜드 M 플랫폼 개발을 주도한 최고급차 및 고성능차 플랫폼 전문가다. 제네시스를 비롯한 고급차 플랫폼 개발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에 어울리는 주행감성을 구현하는 데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차체, 서스펜션, 제동장치 등 자동차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플랫폼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주행성능과 승차감, 안전성, 내부공간 등의 제품경쟁력에서 플랫폼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예즈 라만 상무는 11월에 합류해 일단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랫폼(아키텍처) 기획과 개발을 담당하고, 이후 현대자동차 플랫폼 개발



에 참여한다. 현대차는 파예즈 라만을 통해 고급차 경쟁력의 핵심인 다이내믹한 주행성능과 승차감, 안전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최근 중요성이 커진 ICT(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을 차량에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첨단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파예즈 라만 상무 영입을 계기로 세계 정상급 플랫폼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 디자인 경쟁력과 결합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도심속 오프로드 체험, '랜드로버 익스피리언스' 개최

랜드로버 코리아(대표 백정현)는 11일부터 26일까지 레인지로버 벨라를 경험할 수 있는 '2017 랜드로버 익스피리언스' 고객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랜드로버 전 라인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도심 오프로드 체험 행사다. 극단적인 경사와 내리막 주행을 경험할 수 있는 테라포드, 계곡 바다와 유사하게 도강하는 수로 주행 코스, 불규칙한 험로를 연상시키는 장애물이 설치된 범퍼 코스, 언덕과 경사로 등 급격한 노면 경사 변화를 재현한 시소 코스 등 총 7가지 오프로드 체험 코스를 마련했다.

랜드로버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출시된 럭셔리 중형 SUV '레인지로버 벨라'와 프리미엄 패밀리 SUV '올 뉴 디스커버리'를 운전하며 코스를 달



2017 랜드로버 익스피리언스에서는 올해 출시된 '레인지로버 벨라'와 프리미엄 패밀리 SUV '올 뉴 디스커버리'를 운전해 각종 오프로드 코스를 체험해 볼 수 있다.

려볼 수 있다. 11월 부산(백스코)을 시작으로 17일 서울(양재 화물터미널), 25일 군산(새만금 컨벤션) 등 전국 3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원성열 기자

관광공사 '지구촌 스마트여행' 모바일 서비스 시작

해외에서 사고 발생시 신속히 파악 가능

한국관광공사는 10월30일부터 '지구촌 스마트여행' 모바일 서비스(사진)를 시작했다. 기존 PC 홈페이지에만 제공하던 국외여행 안전정보를 이번엔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 스

마트기기에 최적화해 구현했다.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해외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질병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 가능하다. 국가별 종합정보(날씨, 문화, 환율 등)와 집무리기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다.

경제현장.jpg

백화점은 "미리 크리스마스"



현대백화점이 1일 서울 압구정본점 정문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시한다. 생목 상태 8m 높이의 구상나무에 '눈 내린 마을의 행복한 풍경'을 콘셉트로 다양한 장식물과 조명을 설치할 예정.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미리 연출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시기를 지난해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겼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 현대백화점

또한 사용자가 여행 중 겪었던 위기상황(여권분실, 물품도난, 자연재해 등) 및 대처법 사례를 업데이트했다. 패키지여행객을 위한 '좋은 여행상품 선택법',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픽토그램(그림문자)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저스트 터치 잇' 등도 제공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이수진 기자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0월 31일

코스피지수	2523.43	▲	+21.50
코스닥지수	694.20	▲	+4.52
日 닷케이 지수	2만2011.61	▼	-0.06
中 상하이 종합	3393.34	▲	+3.01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4	▼	-0.02
환율 (원·달러)	1119.00	▼	-6.0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5941.93	▼	-34.63

오늘의 얼굴

김기남 부문장, 삼성 반도체 새 사령탑



삼성전자가 31일 단행한 DS(디바이스 솔루션), CE(소비자 가전, IM(IT&모바일) 등 3대 부문장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권오현 부회장에 이어 새로 DS부문장에

오른 김기남 반도체 총괄사장(사진)이다. 올해로 59세인 김기남 사장은 1981년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기술팀에 입사해 그동안 D램 개발실장,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겸 OLED사업부장 등을 맡았다. 안정직인 경영을 추구하는 권오현 부회장과 달리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임 권 부회장 때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과거 시스템LSI사업부장을 오래 지내 반도체 설계 분야 투자도 늘 것으로 예측했다.

비즈 TALK TALK

- "아직도 삼성전자 주가는 글로벌 기업보다 저평가다"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31일 컨퍼런스콜에서 주주환원책을 설명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강한 자신감 피력)
- "지방대 출신을 열등국민으로 처우한 차별행위"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31일 성명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대졸 신입 채용 때 지방대학 출신을 서류전형에서 배제한 사실을 규탄하며)
- "창업기업 수 보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아야" (산업연구원의 '창업 정책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보고서, 정부지원으로 창업기업이 늘지만 일부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

데이터 경제

